

## 변리사스쿨 1월 전국모의고사 정오표

### 【민법개론 이의신청 내용】

[21번] 민법 15번 4번 지문

해설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채권 전부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고,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문에서는 '전액'이라는 제시가 없기에 옳은 지문이라 보아 이의신청합니다.

답변) 기존 정답 유지.

"(변제자대위를) 할수 있다"는 것과 "우선한다"는 말의 의미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가액비례해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후순위자보다 우선하는 걸까요? 가액비례해서만 대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동순위이지 누가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. 사안의 경우 물상보증인이 결국 후순위자의 몫을 남겨놓고 변제자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,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우선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

### 【자연과학개론 이의신청 내용】

[32번] 문제 이의신청합니다.

ㄷ. 선지인 '에크만 수송으로 연안 용승이 잘 일어날 수 있다.'가 옳은 선지로 나와있는데 해설에서는 '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용승, 연안침강이 발생할 수 있으며'라고 해서 연안용승, 연안침강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연안용승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맞다고 해설하셨습니다.

하지만 이 문제의 출처가 되는 2003년 기출문제(2003년 자연과학개론 32번 문제)에서는 '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침강이 잘 일어난다.'가 틀린 선지였습니다.

이 선지 역시 위 해설처럼 연안용승, 연안침강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서 옳은 선지일 수도 있었는데 기출문제에서 틀린 선지였다면, 이 모의고사의 선지도 틀린 선지여야 하지 않을까요?

답변) 기존 정답 유지.

먼저,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출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. 지적하신 대로, 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용승과 연안침강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선지 '에크만 수송으로 연안 용승이 잘 일어날 수 있다.'는 옳은 선지로 인정됩니다.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, 두 현상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안용승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합니다. 기출문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, 기출문제의 선지내의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객관식 문제의 경우, 가장 틀린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출문제에서 '에크만 수송에 의해 연안침강이 잘 일어난다.'가 틀린 선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, 현재 모의고사의 선지가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, 연안용승과 연안침강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현재 모의고사의 해설 및 정답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